

# 5년만에 재가동 한빛원전 4호기 과연 안전한가

### 140개 공극 발견돼 2017년 스톱...원안위 보고회 통과로 오늘 가동 영광 주민·환경단체들 "안전성 평가 믿을 수 없어...이참에 폐로해야"

부실공사로 140개의 공극이 발견돼 5년 동안 멈춰 있던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가압 경수로형·100만 kW급)가 사실상 재가동에 들어간다.

재가동 여부를 결정짓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보고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한빛원전 4호기의 가동은 9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원안위는 "한빛 4호기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했지만, 지역민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주민들과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된 안전성 평가는 믿을 수 없다"며 재가동에 반발하고 있다.

원안위는 8일 열린 제168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한빛 4호기의 구조 건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3일 전후로 최대출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정기검사서에서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원전 설비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 건물 벽면에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틈이 140개 발견돼 가동이 5년 넘게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높은 건축 자재로 틈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한빛 4호기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모르타르 등 채움재를 넣어 보강하고, 외부의 철근이 노출된 23개소에도 보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보수공사 후 콘크리트

응력 평가 등을 통과해 구조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안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40개의 공극과 공극이 발견되기 쉽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상부등 등에 나타날 수 있는 공극 1815개를 가정해 구조 건전성 평가를 수행했고, 안전하다는 검증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한수원과 원안위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이참에 4호기는 폐로를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빛 4호기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가상의 실험을 바탕으로 해 신뢰할 수 없고, 안전성 조사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주민과 합의한 7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병설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상부 등에도 얼마든지 공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면 조사를 시행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상으로 공극을 가정해 구조 건전성 평가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콘크리트가 한 군데 몰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 원전 발전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그때도 공극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전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정부를 의식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회 영광 위원장도 "지난 5년간 수많은 주민과 단체들이 1000회가 넘는 시위를 했다"면서 "지역민들과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보고서를 통과시킨 것은 완전히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 공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면 조사를 시행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상으로 공극을 가정해 구조 건전성 평가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콘크리트가 한 군데 몰려 있을 가능성도 있다. 원전 발전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그때도 공극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전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정부를 의식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회 영광 위원장도 "지난 5년간 수많은 주민과 단체들이 1000회가 넘는 시위를 했다"면서 "지역민들과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보고서를 통과시킨 것은 완전히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말바우시장 시 방역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8일 말바우시장 닭, 오리 판매업소를 방문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 가짜뉴스 꼼짝 마! '청소년 5·18홍보단' 뜬다

#### 광주교육청 내년 3월부터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청소년 5·18 홍보단'을 모집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온·오프라인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청소년 5·18 홍보단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짜뉴스, 역사 왜곡·편향, 특정 지역 비하 등에 맞서 역사 바로 잡기 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대응을 하고 있는 5·18기념재단 등과 연계해 5·18 왜곡·편향 양상을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데 힘을 보탬 방침이다. 글·그림·춤·노래 등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청소년 5·18 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광주지역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5·18 홍보단의 이름 짓기, 슬로건,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5·18 인식을 높이고 5·18 가짜뉴스에 맞서 진짜 뉴스와 역사를 알릴 홍보단 운영을 구상중이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5·18 홍보단에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여수 대형마트 매장주인이 마트 귀금속 매장 1억 절도

영업이 끝난 대형마트 금은방에서 1억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여수경찰은 지난 2일 자정께 여수시 봉산동의 한 대형마트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마트 3층에 있는 다른 매장 점주인 A씨는 2일 매장이 폐점한 밤 10시께부터 2시간 가량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자정께 1층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범행했다.

A씨는 금은방 매장의 CCTV 코드를 뺐고,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약 3분만에 마트 밖으로 도주했다.

이후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명동 일대 금은방 8곳을 돌며 장물 4000만 원 가량을 팔고 여수로 내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출근한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마트 CCTV 등을 분석해 범행 이튿날 여수에 있는 A씨 집 근처에서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되판 돈 약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채무를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회수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외교부 제동에...양금덕 할머니 서훈 돌연 취소

### 인권위, 국민훈장 수상 3일 앞두고 통보...시민모임 "굴욕 외교 개탄"

외교부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강제집행에 대한 판결을 앞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에 제동을 걸어 수상이 돌연 취소됐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수상이 무산된 경우는 처음이라는 것이 행사를 주관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이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시민모임)은 "대한민국 인권상까지 일본 눈치 봐야 하는 것이냐"면서 "정상적인 나라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양금덕 할머니도 "수훈 보류의 원인은 무엇이나, 부끄러운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면서 "사죄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정부조차 입장을 번복하는 게 기본 나쁘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8일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에 제동을 걸었다"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금덕 할머니를 추천했고,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쳐 양금덕 할머니가 인권상 수상자(훈격 국민훈장 모란장 예정)로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시상식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12월 9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상식에 관련 활동을 보여줄 영상·사진 자료와 함께 리허설에 참석 요청까지 받았다.

하지만 3일 뒤인 지난 6일 돌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 결정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시상식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외교부가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및 훈장 수여와 관련해 상훈 보류 요청 의견을 낸 것이 수상보류의 이유였다.

외교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중반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계획을 처음 통보를 받아 지난주 후반 유관 부처에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광주를 방문해 일제강제동

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외교부가 서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 실무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했고, 관련 보고를 늦게 접해 의견을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적격성 여부 등 수상에 심대한 결점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순전히 윤석열 정부들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대일 기조에 따른 정치적·외교적 고려 때문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비위 상하면, 정부가 '대한민국 인권상' 하나도 주지 못하는 것이냐 이것이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7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허권 2개를 압류했으며 매각을 위해 상표권 특별현금화 결정 재항소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판결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h1>토지 매매 (담양)(장성)</h1>	<h2>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p>▶ <b>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b></p> <p>■ <b>임야 : 7,500평</b></p> <p>■ <b>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b></p>	<p><b>*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2) 중급반 (실전부터 ~)</li> <li>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li> <li>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li> </ol>																								
<p>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p> <p>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p> <p>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p> <p>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p> <p>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p>	<p>▶ <b>경매 물건 추천</b> ◀</p> <table border="1"> <tr> <td>서구풍암동 (상가주택)</td> <td>▶</td> <td>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td> <td>▶</td> <td>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북구 삼각동 (어린이집)</td> <td>▶</td> <td>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공장)</td> <td>▶</td> <td>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td> <td>▶</td> <td>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td> </tr> <tr> <td>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td> <td>▶</td> <td>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td> </tr> <tr> <td>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td> <td>▶</td> <td>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td> </tr> <tr> <td>장성읍 안평리 (농지)</td> <td>▶</td> <td>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td> </tr> </table>	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h3>010-6670-9800</h3>	<h3>010-2614-9801</h3>																								